

# 지역혁신과 대학구조개혁 모형

합석동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과장

정부에서도 거듭해서 밝히고 있듯이 대학구조개혁의 목표가 단순히 대학의 수를 줄이고 학생정원을 감축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대학구조개혁은 더 큰 목표를 지향한다. 대학이 스스로 판단하여 대학유형별로 차별화된 중점기능·역할체계를 정립함으로써 대학의 인적·지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 간에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데 있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 대학의 고질적 병폐의 하나는 모든 대학이 연구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백화점식 획일성이었다. 미국의 4년제 대학 중 연구중심대학이 15% 미만이라는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대학의 경쟁력 저하의 주요원인으로 대학 특성화의 결여가 지적된다.

정부의 국립대학 구조개혁 일정을 보면 권역별로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권역별 구조개혁 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는 어려운 과정이 되겠지만 우선 권역별 대학의 합의에 기초하여 대학별로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 실업의 문

제도 따지고 보면 모든 대학이 백화점식 학과 개설로 무차별적으로 졸업생을 과다 배출한 원인이 크기 때문이다. 각자 대학의 역할에 맞지 않은 학과(부)는 과감히 정리하고 각자의 특성화 방향에 따른 수준별, 기능별 인력 양성에 매진할 때만이 인력양성의 효율성 제고 및 취업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대학들이 특성화 방향을 정할 때, 그 지역 내의 지역전략 산업과 지역 연구산업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조개혁의 또 다른 큰 목표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 자립형 지방화 실현에 있기 때문이다.

## I. 대학 특성화의 방향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대학 특성화의 방향은 우선 설립유형 및 목적별로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국립대학은 국가 정책적 필요에 의한 인력양성 분야를 중점육성 분야로 설정하되, 기초 및 보호학문 분야의 육성, 기타 고등교육에 대한 기회균등 보장 등의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한정된 재원으로 교육

의 질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학 내·대학 간 구조개혁 모델을 제시하고, 대학의 구조개혁 내용을 평가하여 재정지원을 차등화하는 정책도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립대 시설예산의 경우 시설보수 등을 제외한 신·증축 시설예산 중 1/2은 대학별 소요에 따라 자동배분하고, 1/2은 구조개혁 예산으로 확보하여 평가에 따라 구조개혁이 우수한 대학에 집중지원하는 방식 등이다. 향후 권역별로 제출될 구조개혁안이 미흡할 경우 권역별 대학 구조개혁의 시범지역을 지정·지원하고 이를 타 권역이나 대학에 확산시키는 방법도 논의해 볼 만하다. 좀 더 발전적으로는 여건이 되는 국립대학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대학경영 및 예산운영의 자율화를 통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립대학 법인화와 같은 독립기관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구조개혁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이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각 대학의 발전유형 결정을 존중하고 재정지원 프로그램의 추진성과와 대학의 자체 재원 투자실적, 교육과정 개선노력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분야별·수준별로 대학 특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학 설립목적에 따라서는 전문대, 산업대, 방송대, 각종학교 등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인력양성으로 특성화하고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행·재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회변화에 따라 전문대, 산업대 등의 당초 설립취지가 약화되고 기관 간 설립목적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정부는 고등교육체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공론화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4년제에 준하는 각종 학교나 전문대에 준하는 고등기술학교 전공과 등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수요 자체가 거의 없고 별도 존립 근거가 미약한 점을 감안하여 관련제도 폐지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 구조개혁의 추진에 있어서는 지역적인 요소가 감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경제, 사회, 문화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대학의 입지여건 약화를 고려한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따지고 보면 대학의 공동화 내지 지방인재의 수도권 집중의 문제는 수도권에의 과도한 자원 집중에 따른 약순환의 구조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대학교육의 질 제고 노력은 등한시 한 채 개혁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는 수도권지역 대학들의 안이함을 시급히 불식시키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수도권 대학들도 개혁의 장으로 동참시켜야 할 것이다.

지방대학의 차원에서의 대학구조개혁의 방향은 지방대학이 지역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인재가 지방에 정착하고 이에 따라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유도하는 데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RIS(지역혁신체계) 구축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산업기반이 취약하다 못해 전무한 낙후지역이 많고 지방대학의 연구·교육여건도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제한된 자원과 취약한 혁신역량 속에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R&D 및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지방대학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선진국의 수많은 경험사례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앞으로 지역이 혁신을 통해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대학 특성화의 방향은 우선 설립유형 및 목적별로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국립대학은 국가 정책적 필요에 의한 인력양성 분야를 중점육성 분야로 설정하되, 기초 및 보호학문 분야의 육성, 기타 고등교육에 대한 기회균등 보장 등의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각 대학의 발전유형 결정을 존중하고 재정지원 프로그램의 추진성과와 대학의 자체 자원 투자실적, 교육과정 개선노력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분야별·수준별로 대학 특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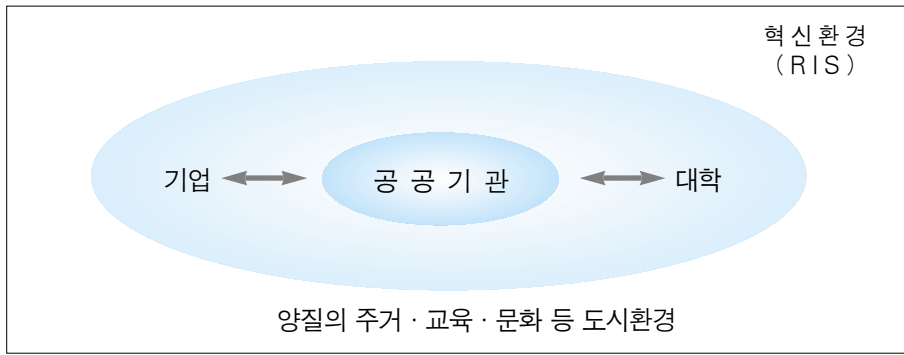
살아나려면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지역과 밀착된 지방대학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병행하여 대학의 기능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대학의 역할과 기능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고 중요한 것은 대학의 산업화가 바람직합니까 하는 이분법적 이념논쟁보다는 그것이 대학의 질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가하는 문제일 것이다. 지역혁신을 위해서는 지역 내의 대학과 기업 간의 산학협력이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 대학에는 여전히 산학협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존재하는 반면, 선진국들은 지금 지식과 기술에 입각한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산학협력에 국가적 역량을 총 집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II. RIS 구축에 있어 대학의 역할

지역혁신체계(RIS) 구축에 있어 대학의 역

할과 관련해서 혁신도시, 기업도시, 복합도시, 혁신클러스터 등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우선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역내 산·학·연·관 사이의 협력 및 네트워크를 통해 혁신을 창출·확산·활용함으로써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지리적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지역전략산업과 연관된 기업·대학·연구소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산·학·연·관의 협력과 네트워크를 촉진할 수 있는 시설과 조직 등 환경을 구축하고, 양질의 주거·교육·문화·여가시설 및 기간 교통망, 첨단정보통신망 등의 도시환경이 구축된 도시이다. 혁신도시는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제시된 시·도별 지역전략산업과 연계성이 큰 공공기관을 특화기능군으로 구분하고 혁신도시로 집단 이전할 것이기 때문에 지역 대학의 경우에도 특성화 방향을 지역전략산업 및 공공기관 특화기능군과 연계하여 설정하고 특성화관련분야대학, 단과대학, 복수대학 간 학부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하여 특화 캠퍼스



(그림 1) 혁신도시의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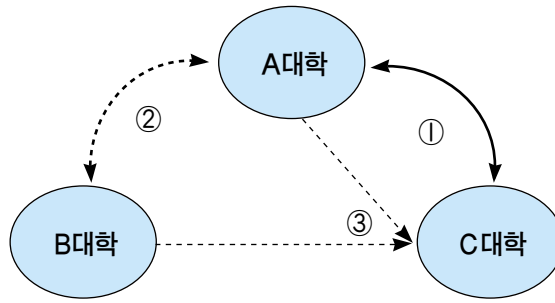
를 혁신도시에 신설·이전함으로써 산·학·연 간의 협력을 통한 대학의 질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혁신도시 이외에 지역혁신체계 유형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대학 주도형인 미국의 실리콘밸리, 원주의 의료기기 산업, 기업주도형인 프랑스의 앙띠폴리스, 일본의 오오타구, 울산의 자동차, 파주의 LG 필립스 LCD 클러스터, 아산 탕정의 삼성 LCD 단지, 정부주도형인 스웨덴의 시스타, 대만의 신주, 중국의 중관촌, 대덕 연구개발특구, 오송 생명과학단지 등이 있다. 각각의 양태가 어떻게 시대적 추세는 지역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연구 및 지식 창출의 매개자로서의 대학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학들은 대학 내의 특화 역량을 집중하고 기업도시, 복합도시, 클러스터 등의 산업분야별·지역별 연구개발 역량과 기술수요자의 분포, 파트너십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자기대학의 비전과 여건에 맞는 특정지역에 혁신주체로서 참여하여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할 점은 대학이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 기업과 연구소가 집적된 특정 클러스터나 밸리, 복합도시에 무조건 입주할 경우 성공 가능성은 낮으며 관건은 주체 간의 물리적 집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혁신주체 간의 내적인 긴밀한 상호교류를 통하여 주체 간 시너지 효과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창출해 낼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있다는 것이다. 즉, 대학은 지역혁신체계 내에서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며 타 주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대학의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에 관한 확실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때만이 실패확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혁신클러스터 내의 지방대학의 발전은 순차적으로 지역산업의 발전, 인재의 지방정착, 지방과 수도권과의 격차 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자립형 지방화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Ⅲ. 대학 특성화의 내용

이 장에서는 대학의 특성화의 구체적인 내



(그림 2) 대학 간 교류 모형 예시

용을 편의상 대학내부와 대학 간의 구조개혁으로 구분해 보았다.

우선 대학내부의 특성화를 위한 학사운영체제 개편에는 비교우위분야 중심의 대학특성화가 요구된다. 인력수요 예상분야, 지역특화분야, 대학특성화분야 위주로 학과 구성 전환 및 학과(부), 단과대학 통합·개편이 바람직하다.

연구중심 대학의 경우 학부제 확대시행 및 대학원 전공 분야에 필요한 학부 교과목 개발 등이, 교육중심 대학의 경우 학과나 전공코스 중심으로 운영하고 산업체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대학내부 구조개혁의 내생적 한계를 넘어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대학 간 구조개혁을 편의상 대학 간 교류, 대학 간 연합, 대학 간 통합 등으로 구분하여 보기로 한다. 우선 대학 간 교류는 대학의 독립성·자율성·영속성을 유지하면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대학별로 분산되어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대학 간 교류는 국내·외 대학 간의 상호 학점인정, 공동 학사운영, 교수·학생 교류, 협동과정 운영 등 교육과정 연계와 교육과정 및 연구를 통

한 대학 간 교수·학생 등 인적 자원 교류, 대학 간 도서·시설·설비·기자재 등의 물적 자원 공유와 전산 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정보의 상호 교류, 대학 간 및 대학과 사회부문(기관·기업·연구소 등) 간의 교류와 산학협력 등을 통한 지역혁신체계(RIS)의 활성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대학 간에 연합 및 통합을 추구할 경우에 대학 간 교류는 그 기반조성 단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사례 1 : A대학과 C대학 간에 교수·학생 교환, 학점 교류, 공동학위과정 등을 통한 특정 교육과정 내실화(①)

- A대학이 교육학과의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기 위해 인근의 C대학이 드물게 보유하고 있는 '교육사' 전공의 교수를 초빙하거나, A대학의 학생으로 하여금 C대학에서 관련 학점을 이수하도록 함.

예) 일본의 도쿄의과치과대학, 도쿄외국어대학, 도쿄공업대학, 히토쓰바시대학 등 4개 국립대학이 생존을 위해, 2~3개 대학이 조를 짜서 '복합영역'이라는 코스를 만들고, 상호 학점 교류 및 편입 개방

〈표 1〉 학과·단과대학 교환의 기준 예시

기준	내용
내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여건(교수 1인당 학생수, 학교의 투자 정도)</li> <li>• 연구비 수주액</li> <li>• 졸업생 취업률</li> <li>• 교육과정의 고유성</li> <li>• 최근 3년간 등록률</li> </ul>
외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과(부)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지도</li> <li>• 지역여건(발달산업, 문화환경)</li> <li>• 정부의 전략적 육성 분야 여부</li> <li>• 입학생 수준</li> <li>• 학문별 인력수급 전망</li> </ul>

예) 미국 뉴욕대는 인근의 스티븐스 공과대학과 공동으로 '생물학이학사/화학공학학사', '생물학이학사/환경공학공학사' 등과 같은 복수 학사학위(5년)과정 운영

- 사례 2 : 학부교육 중심의 A대학이 연구(전문직업교육) 중심의 B대학과 기초교육 및 진학(편입)을 위한 연계과정 구축(②)

- B대학의 의과 전문대학원이 필요한 학부수준의 교양 및 기초교육과정을 A대학에 설치하고, 진학관련 특약을 맺음.

예) 미국의 경우 많은 대학에서 문리대 2, 3학년 학생이 의대에 지원하여 미리 입학허가를 받고 문리대 졸업과 동시에 의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의대진학조기결정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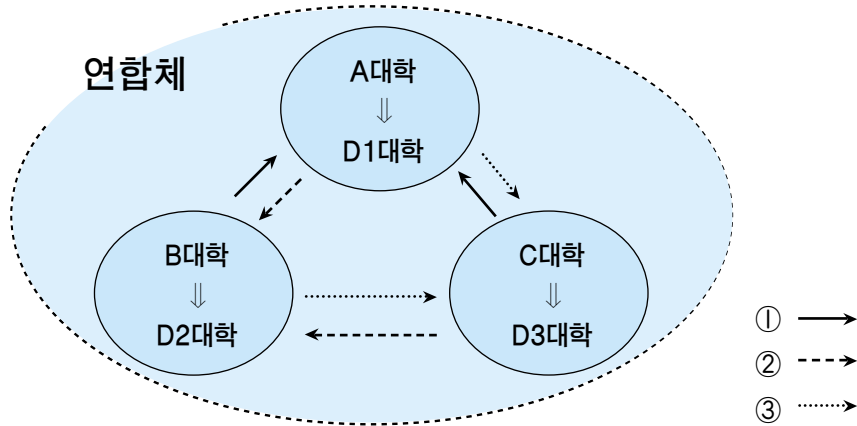
예) 전문대학에 대학 편입과정 및 학부교육을 위한 remedial course 개설

- 사례 3 : A, B, C의 세 대학이 공동으로 특

정 분야 관련 연구소를 C대학에 설치하여 공동연구 수행(③)

- A대학의 생물학과, B대학의 약학과, C대학의 농과대학이 공동으로 C대학의 부지에 생명과학연구소를 설치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학술회의를 개최함.

다음으로 '대학 간 연합'이란 대학별로 독립된 운영조직과 회계를 보유하고, 연합체제 차원에서 대학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각 대학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으로, 주로 하나의 중심대학이 '지주대학(支柱大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체제이다. 대학 간 역할분담을 통해 특성화를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교류와 구분되며, 대학의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통합과 구분된다. 현재 시도되고 있는 국립대학 간 구조개혁의 현실적 모델로서,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단계 또는 완결적 형태의 대학 간 협력 형태로 볼 수 있다. 대학 연합은 대학 간 교류의 내용을 전제로, 대학 간 역할분담 및 특성화를 추진한다. 여기에는 연합체



(그림 3) 대학 간 연합 모형 예시

제 내의 대학 간 분야별(수평적) 역할분담 또는 수준별(수직적) 역할분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중복·유사학과의 교환·통폐합, 수요가 적은 학과 또는 전공의 폐지·전환 및

정원 감축 등 인적·물적 자원의 캠퍼스 재배치를 통하여 조직 슬림화 및 시너지 효과를 추구한다. 연합체제 내 연구중심대학은 소수의 학부과정을 두고, 나머지 학과는 경쟁력이 있

<표 2> 대학기능별 역할 분담 안<sup>1)</sup>

연구중심모형 캠퍼스	교육중심모형 캠퍼스	실무중심모형 캠퍼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부대비 대학원 비중이 일정비율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부중심의 교육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무직업교육 중심의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권역 내의 기초 및 보호학문 분야 교육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권역 내의 응용학문 중심 교육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업인력 양성 및 평생교육기능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전문대학원 중심 운영</li> <li>특수대학원 폐지 유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사/석사 중심</li> <li>특성화 분야 및 협동과정 중심 박사과정 운영</li> <li>전문/특수대학원 운영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전문대학원 제한</li> <li>특수대학원 설치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부제 확대 실시</li> <li>학부정원 일정규모(20~30%) 축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특성, 산업체 수요에 맞는 특성화된 학부 구성</li> <li>전문/특수 분야 대학원 교육과 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체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li> <li>산업현장인력의 재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업적 중심의 교수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활동 및 학생성취도 중심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성취도 중심 평가</li> </ul>
고급전문인력 양성	전문기술인력 양성	중견기술인력 양성

\* 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학부/특수대학원 폐지

1) 본 내용은 전적으로 저자 개인의 견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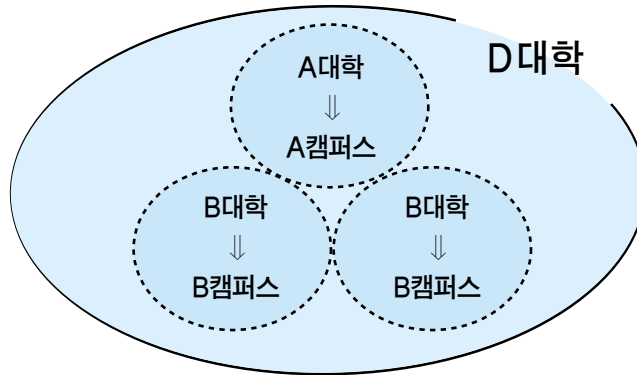
### 권역별 국립대학 연합체제 모형 예시<sup>2)</sup>

〈수평적·수직적 역할분담의 질충형〉

- 권역 구성
  - 수도권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1개 권역)
  - 지방은 인접한 광역시와 도를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8개 권역)
  - 교대를 포함하여 권역 내 모든 국립대학을 연합체제로 개편
- 권역별로 하나의 거점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
  - 박사과정은 거점대학에만 설치, 다른 참여대학은 석사과정만 설치 가능
  - 거점대학의 학부과정을 관련 특성화 분야를 고려하여 다른 참여대학으로 대폭 이양
  - 참여대학이 특성화 분야와 관련하여 박사과정을 설치할 경우에는 거점대학과의 연계를 필수조건으로 부과
- 참여대학은 설정된 특성화 분야에 따라 역할 분담
  - 각 참여대학의 특성화 분야 설정은 기존의 비교우위 분야를 고려하여 참여대학 간 합의를 통하여 결정
  - 연합체제 내 대학의 학부 및 석사과정은 각 참여대학의 특성화 분야에 따라 대학 간 장벽 없이 재배치
  - 모든 분야의 정원은 연합대학체제의 틀에서 적정 수준으로 감축, 특히 사회적 수요가 적은 분야의 과감한 축소 단행
- 연합체제 내 개별 대학 간 통합 허용·촉진
  -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하나의 참여대학 내에 통합
  - 국립 산업대중 졸업생 취업률, 산학연계 등 산업대학으로써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소수의 대학 존치, 나머지 대학은 특성화 추진 후 일반대학과 통합
  - 국립 전문대학은 분야별로 일반대학에 흡수하고, 일반대학에서 전문학사과정 설치 허용
  - 전국적으로 분산된 국립 해양대학의 경우, 국가전략 분야 및 지역적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통폐합 추진

2) 모형은 전적으로 저자 개인의 견해임.





(그림 4) 통합 모형 예시

다고 판단되는 타 대학에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나 여기에는 학부과정 이양에 따른 대학의 희생이 요구되는 만큼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 바,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교원 초빙 재원 지원, 학생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졸업시 국·공립 연구소 취업 보장, 최고 수준의 실험 기자재 제공 등 행·재정적 지원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하겠다. 한편 기타 교육중심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석·박사 과정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 연구중심대학으로 이양한다.

- 사례 1 : 연합체제 내 대학 간 분야별 특성화를 목적으로 관련학과 등을 각 대학으로 집중 재배치(수평적 역할 분담)
  - A대학 : 자동차 분야 특성화(①)
  - B대학 : IT 분야 특성화(②)
  - C대학 : 해양 BT 분야 특성화(③)를 목적으로 관련학과 재배치

- 사례 2 : 연합체제 내 대학 간에 교육수준별 특성화를 목적으로 역할분담(수직적 역할 분담)
  - A대학 : 대학원 및 연구소 집중(①), 박사학위과정은 A대학에만 설치
  - B대학 : 학부수준의 일반학과 집중(②)
  - C대학 : 전문대학원 및 직업교육 관련학과 및 교육과정 집중(③)

대학 간 통합은 두 개 이상의 대학이 결합하여 하나의 대학이 되는 것으로, 단일화된 조직과 회계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대학 간 연합'과 구별된다. 기존의 개별 대학은 단일대학 소속의 캠퍼스로 흡수 또는 처분된다. 통합대학은 피통합대학의 경쟁력 낮은 분야를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특성화된 분야와의 유사성에 따라 관련 분야로 전환할 수 있다. 대학통합은 '대학 간 연합'의 경우와 같이 참여대학 각각에 대한 적절한 역할 분담이 요구되지 않기 때

문에 보다 전면적인 물적·인적 자원의 절감 및 재배치가 가능하다. 즉, 단일의 대학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쟁력 있는 분야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대학 간 통합이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통합 대상 대학 간의 지리적 여건, 비용 절감,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 효과, 통합·개편에 따른 시너지 효과, 통합 대상 대학의 설치 학과 간 연계성 및 개편 타당성, 교육과정 통합계획과 설치·개편학과의 향후 발전전망 및 사회적 요구, 학생 및 교원 처리계획, 양 대학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정도, 지역주민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 사례 1 : 지리적 근접성 위주의 대학 간 통합

- 입지상 동일한 통학권 소재 대학 간 규모의 경제를 통한 단일캠퍼스와 유사한 수준의 인적·물적 자원 절감
- 이와 같은 대학 간 자원 공유에 의한 운영 효율성 증대효과는 단기적으로는 유효하나, 장기적인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으로는 미흡
- 예) 부산수산대학교와 부산공업대학교 통합한 부경대학교(96) 등 다수의 국내 사례 존재
- 예) 호주의 경우 1998년 소규모의 기술 단과대학을 통합하여 대규모 대학교 또는 대규모 전문대학으로 전환
- 예) 1974년 보스턴대학과 인근 뉴튼대학의 통합

■ 사례 2 : 네트워크 위주의 대학 간 통합

- 지리적으로 떨어진 대학들 간의 통합을

통해 현재지역에서의 위기상황과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형태

- ‘본교 - 본교’의 네트워크 구축방안과 같은 형태이나, 통합을 통해 상호 본교의 개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상이함
- 예) 영국의 경우 1980년 런던대학이 웨일즈대학과 북아일랜드 소재 울스터대학을 통합하여 하나의 런던대학으로 네트워크 구축

■ 사례 3 : 특성화된 소규모 대학의 흡수

- 동등한 수준이 아닌 특성화된 전문대학, 산업대학, 기업체 보유의 사내대학 등을 흡수하여 특정 분야의 경쟁력강화 도모
- 특히 사립의 경우 단일법인 소속의 대학과 전문대학의 통합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임
- 예) 공주대학교의 예산농업전문대학 통합(92) 등 다수의 국내 사례 존재
- 예) 일본의 경우 쓰쿠바대학의 도서관정보대학 통합(02) 등 다수 사례 존재
- 예) 노르웨이의 경우 1994년까지 98개의 전문대학이 26개의 주립대학으로 통합 **대학**

함석동

서울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를 졸업하였고, 미국 아이오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경기도 교육청 교직과 학사계장, 교육부 교육정책담당관실 사무관, 교육부 조정1과 사무관, 교육부 대학행정지원과 대학정책과 서기관,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빙교수를 지냈고,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국 과장으로 재직 중이다.